스노보드 김상겸, 올림픽 첫 메달 깨물다

대회 8위로 시작했지만 랭킹 1위 잡고 은메달
컬링은 연승에도 탈락
유승은 빅에어 결선행

8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상겸.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메달 레이스 이틀째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메달이 설원에서 나왔다.

스노보드 알파인 종목의 37세 베테랑 김상겸(하이원)은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대회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베냐민 카를(오스트리아)에 이어 준우승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에서 처음 나온 메달이며, 동·하계를 통틀어 우리나라의 통산 400번째 올림픽 메달이다.

김상겸은 2014년 소치 대회부터 4번째 올림픽에 도전한 끝에 감격의 첫 메달을 거머쥐었다.

김상겸은 이날 예선에서 1·2차시기 합계 1분27초18을 기록, 전체 8위에 오르며 상위 16명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겨뤄 최종 성적을 가리는 결선에 진출했다.

첫 경기인 16강에서 상대 선수잔 코시르(슬로베니아)가 넘어지면서 8강에 오른 그는 8강전에선 이번 시즌 월드컵 3승을 거둬 이 종목 랭킹 1위를 달리던 45세 롤란드 피슈날러(이탈리아)를 잡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어 준결승에선 테르벨 잠피로프(불가리아)를 0.23초 차로 따돌려 은메달을 확보한 그는 결승전에선 카를에게 0.19초 차로 지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컬링 믹스더블의 김선영(강릉시청)-정영석(강원도청)은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라운드로빈 경기에서 에스토니아와 캐나다 팀을 연파했다.

7차전에서 에스토니아 마리에 칼드베-하리 릴을 9-3으로 꺾은 이들은 이어 캐나다의 조슬린 피터먼-브렛 갤런트를 9-5로 제압, 5연패 뒤 3연승을 달렸다.

하지만 이미 5승 이상을 거둔 팀이 4팀이라 김선영-정영석은 4강 합류는 불발됐다.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10㎞+10㎞ 스키애슬론에서는 이준서(경기도청)가 53분39초0의 기록으로 완주하며 58위에 자리했다.

이 종목에선 요한네스 클레보(노르웨이)가 46분11초 만에 레이스를 마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현재 은메달 1개의 한국은 대회 공동 11위를 달리고 있다.

유승은(성복고)은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예선에서 166.5점을 받아 전체 4위로 12명이 경쟁하는 결선에 진출했다.

유승은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처음 정식 종목이 된 빅에어에 우리나라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출전해 첫 결선 진출까지 이뤘다.

결선은 10일 오전 3시3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오현규, 데뷔전서 오버헤드킥 골 작렬

PK 유도까지… 만점 활약
베식타스 패배 위기 구출

튀르키예 베식타시 유니폼을 입은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오현규(24)가 데뷔전에서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으로 데뷔골을 터뜨리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오현규는 9일(이하 한국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투프라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알라니아스포르와의 2025-2026 튀르키예 수페르리가 21라운드 홈경기에서 동점골을 책임지며 팀의 2-2 무승부를 이끌었다.

이날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오현규는 팀이 1-2로 뒤지던 후반 9분, 문전혼전 상황에서 높게 뜬 공을 오버헤드킥으로 연결해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 5일 이적료 1400만 유로(약 241억원)를 기록하며 베식타시에 합류한 지 불과 나흘 만에 터진 강렬한 신고식이었다.

오현규의 활약은 득점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에 앞선 전반 29분에는 페널티킥을 유도해 팀의 첫 골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승부의 추가 확실하게 기운 0-2 상황에서 오현규가 추격의 불씨를 살렸다. 오현규가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전반 33분 키커 오르쿤 쾨크취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베식타시는 한 점 차로 따라붙었다. 이어 후반 오현규의 동점 골까지 더한 베식타시는 0-2의 열세를 극복하고 무승부를 거뒀다.

알라니아스포르에서 뛰는 황의조도 이날 경기에 선발 출전해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선발 출전한 황의조는 전반 9분 얄촌의 선제골을 도운 데 이어, 전반 16분에도 날카로운 패스로 추가 골의 기점이 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이며 오현규와 맞대결을 펼쳤다.

오현규 덕에 승점을 챙긴 베식타시는 승점 37(10승7무4패)로 리그 5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데뷔전 첫 골 세리머니 하는 오현규. 연합뉴스

남자 테니스, 데이비스컵 8강 도전

아르헨티나 상대로 본선 진출전 3-2 승리

아르헨티나를 꺾고 기뻐하는 한국 선수단. 대한테니스협회 제공

한국 남자 테니스 대표팀이 9월 인도를 상대로 국가 대항전인 데이비스컵 8강 진출에 도전한다.

한국은 8일 부산에서 열린 2026 데이비스컵 테니스 최종 본선 진출전(퀄리파이어) 1라운드(4단 1복식) 아르헨티나와 경기에서 3-2로 이겼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9월 인도를 상대로 세계 8강이 겨루는 파이널스 진출에 도전하게 됐다.

데이비스컵은 퀄리파이어 1라운드에 26개 나라가 출전하고 여기서 이긴 13개국이 지난해 데이비스컵 준우승국 스페인을 포함해 14개 나라가 겨루는 2라운드에 진출한다.

2라운드도 통과한 7개 나라는 지난해 우승팀 이탈리아가 기다리는 세계 8강, 파이널스에서 최종 우승팀을 정하게 된다.

인도는 네덜란드를 역시 3-2로 물리치고 2라운드에 합류했다. 단식 최고 랭킹이 281위인 수밋 나갈이고, 이후로는 400위 대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다.

한국은 이번 아르헨티나와 경기에서 권순우(343위·국군체육부대)가 2승을 따냈고, 정현(392위·김포시청)이 2-2 상황에서 마지막 단식을 잡아냈다.

아르헨티나는 유키 밤브리(복식 20위), 로한 보파나(복식 62위) 등 100위 이내 선수 5명이 포진해 전력이 강한 편이다. 연합뉴스

임성재,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출전 목표

"손목 부상 감안해 복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임성재가 19일 개막하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출전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임성재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올댓스포츠는 9일 "임성재의 손목 부상이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느려 지금도 손목 부위에 염증과 통증이 일부 남아 있다"며 "지난주 정밀 진단 결과 전반적인 회복 추세는 확인됐으나 무리한 대회 출전보다 충분한 회복 후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료진 판단"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임성재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막을 올리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댓스포츠는 "그러나 선수의 컨디션 및 회복 경과에 따라 출전 일정은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0(화)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동행(재)	6: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7:00 TV 유치원 7:30 굿모닝 대한민국(재) 8:50 생생정보 스페셜 9:30 일일드라마 친밀한 리플리(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간극장 스페셜 11:2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투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첫 번째 남자(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11:1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11:45 주니토니 이야기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J방플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00 히든카드	8:20 지구 영웅 번개맨 9:20 자이언트 펭TV 9:40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12:10 귀하신 몸 13:00 EBS 평생학교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6:10 딩동댕 딩동댕 18:30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 19:50 극한직업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동네 13: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4:00 KBS 뉴스 14:10 팔도밥상 스페셜(재) 14:3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50 한국인의 밥상(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캡슐세이버재) 16:00 TV 유치원(재) 16:30 어린이 동물티비(재) 17:00 라이즈맨 3 17:15 그라운드크루 토토 17:30 스튜디오 K 스페셜	12:00 12 MBC 뉴스 12:25 오늘N(재) 13:25 한글용사 아이야(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엄마를 부탁해(재)	12:00 SBS 12 뉴스 12:45 히트레이서 13:00 투데이(재) 14:00 뉴스브리핑 15:00 말하는 몸(재) 16:00 화첩기행 17:00 SBS 오뉴스 17:15 JIBS 저녁 뉴스 17:30 꾸러기 탐구생활(재)	
18:00 6시 내고향 19:00 KBS뉴스 7 제주 19:40 보물섬 20:30 일일드라마 마리와 별난 아빠들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시사기획 창 22:50 KBS 뉴스라인W 23:30 영상앨범 산(재)	18:00 경제콘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친밀한 리플리 20:30 셀럽병사의 비밀 21:45 스모킹 건 22:45 아이 러브 스포츠 23:10 스튜디오 K	18:05 다큐 M 19:05 첫 번째 남자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밥상의 발견 22:20 PD수첩 23:20 100분토론	18:00 생방송 투데이 18:50 뉴스헌터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틈만나면 22:4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KCTV

9:00 KCTV 9시뉴스
9:30 인터뷰 제주공감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30 방송콘텐츠 경연대회
13:30 살아있네 살아있어
15:30 또래불
16:00 공연에 반하다
17:30 황금나침반
18:00 캠핑가자
19:00 KCTV 종합뉴스
20:00 슈퍼푸드의 힘_B

제주CBS FM 93.3MHz 90.9MHz

7:1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봉규의 어떤가요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박지환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TBN제주교통 FM 105.5MHz 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5 TBN 제주매거진
18:05 달리는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0일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다. 48년 세무조사나 위생 검열 등 과태료가 있어 스트레스. 60년 투자, 투기 등 과욕은 금물. 경제관념이 중요. 창업·개업은 심사숙고. 72년 활달하고 명랑함이 오히려 대인관계에 경거망동으로 보일 수 있으니 언행 조심. 84년 외모에 관심을 갖고 지출이 늘어난다.

37년 과격한 언행은 내 몸을 상하게 한다. 여유와 너그러운 생활습관이 필요. 49년 평소의 방식을 변경하면 불리하니 기존 방식을 유지하라. 61년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상처가 되니 모진 말은 삼가할 것. 73년 인간관계에서 인정을 받고 인기도 많다. 85년 자격증은 미래 직업으로 연결된다. 최선을 다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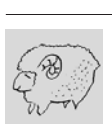
38년 슬픔 뒤에는 기쁨이 온다. 집안에 화목 또는 길사가 찾아온다. 50년 아이디어로 승부하거나 기획력을 인정받는다. 62년 여유가 필요하고 신중함이 필요하다. 서두르면 실수가 생긴다. 74년 자존심과 독단은 대인관계를 어렵게 한다. 부부관계는 사랑과 배려가 최선. 86년 시험이 있다면 신중함을 가져라.

39년 답답하게 안풀리던 일이 점차 해소된다. 51년 내 뜻대로 되지않아 마음이 답답하고 실속없이 분주하다. 63년 취업 또는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은 기쁜 소식이 오기도 한다. 75년 주변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긴다. 상대를 배려하며 경청해줄 것. 87년 동료에 의해 피해가 오니 신경을 쓰고 주의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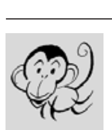
40년 가정의 화합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안식처 가정이 최우선. 52년 내 손과 발을 상대는 필요로 한다. 내 도움을 나눠 줄 일이 있다. 64년 자녀일로 즐거움도 있지만 금전 지출도 있다. 76년 내 주장을 내세우면 상대가 나를 멀리한다. 88년 직장, 취업, 학교의 소식이 있다. 최선을 다해 경주하라.

41년 온천욕이 피곤한 마음을 만족시킨다. 53년 문서 매매 이동 등의 일이 생기고 자식건은 좋은 일이 있다. 65년 소망하던 일이 풀리는듯 하다 방해자가 생긴다. 77년 비온 뒤에 하늘이 청명하듯이 서서히 회복되니 마음을 비워라. 89년 마음먹은 일이 안 풀리면 여행을 하거나 서점에서 쇼핑하라.

42년 아랫사람이 자문을 구하면 흔쾌히 받아줄 것. 54년 나보다 상대가 강하다. 소송건에서는 불리하니 타협점도 생각한다. 66년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방해자가 되거나 이성으로 고민이 생긴다. 78년 진퇴양난의 입장이 오면 윗사람과 상의해 일을 해결하는게 좋다. 90년 집안에 재물이 쌓이는 형국.



43년 식장이나 행사에 참여하고 기쁨도 있다. 55년 신용을 잃으면 회복이 어렵다. 대인관계를 넓혀라. 67년 기혼자는 가정에서 논쟁, 미혼자는 이성간 불화가 오고간다. 79년 사사로운 감정이나 오해로 언쟁을 하니 참으면 해소된다. 91년 거절을 당하거나 일이 중도에 멈출 수 있으니 큰 기대는 하지 말 것.



44년 배신 또는 금전적 손해가 따르니 주의. 56년 융통성이 없으면 대인관계를 넓히자. 68년 직장인은 명예 또는 상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고과점수에 반영. 80년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면 풀어라. 안풀면 골이 깊어지고 다시 보기 어렵다. 92년 의욕이 증가해 무슨 일이든 하고 싶다.

45년 한마디 말이 마음을 상하게 하니 언행자제. 57년 남의 것에 관심이 많으면 구설이 따르고 자녀 일에 관심을. 69년 인간관계에서 모함 또는 시기·질투가 생기니 참견하는 일은 자제. 81년 재물에 대한 손실이 있으며 마음이 불안 초조하다. 이성관계 불화. 93년 나의 일에 충실하고 타인의 일에 간섭은 금물.

46년 계약 매매 등에 관한 일이 생기고 수익이 생긴다. 58년 동업시 언쟁을 조심해야. 기득권을 가지고 논쟁도 한다. 70년 서두르면 화가 오니 여유가 필요하다. 82년 외모에 신경을 쓰고 가꾸려 한다. 머리,옷에 지출하게 된다. 94년 형제의 화합과 건강이 기쁨이며 즐거움이다. 친구의 소식을 접한다.

47년 수입이 생기고 전문직은 바쁜 일이 생긴다. 59년 주면 오는 것이 있으니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단체봉사에 참여하기도. 71년 돌탑을 하나씩 쌓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목적 달성이 근간에 와 있다. 83년 희망이 생기고 의욕이 충만.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라. 95년 친구들의 만남이 흥겹고 대화가 즐겁다.